

◆Building Reading Habits of Young People through School Libraries

學校圖書館을 통한 學生의 讀書習慣化

金 斗 弘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所長)

I. 緒 論

오늘 나에게 주어진 主題에는 세 가지의 側面——學校圖書館, 讀書 및 習慣化——이 있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에 걸 수 있는 期待가 무엇인가를 論하고, 讀書에 관하여 그 重要性을 재확인하고, 學校圖書館이 讀書의 習慣化를 위하여 강구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있어서, 學校圖書館을 理解하려면 學校教育을 理解하여야 하고, 學校教育을 理解하려면 우리가 處하여 있는 現代를 理解하여야 하므로, 現代의 性格과 그 性格에 상응한 教育의 方法과 그리고 그 方法에 대한 學校圖書館의 可能性을 먼저 論하고자 한다. 讀書의 重要性에 관하여서는, 電波 및 映像媒體가 고도로 發達함으로써 이들이 印刷媒體의 社會的 比重을 多少 輕重시키고 있는 듯한 昨今의 傾向에도 불구하고, 印刷媒體는 여타의 媒體가 추종할 수 없는 뛰어난 特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教育的으로나 社會的으로 重視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讀書의 習慣化 方案으로서의 讀書環境의 造成方法과 習慣形成을 위한 訓練의 方法 등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II. 現代教育과 學校圖書館

A. 現代의 性格

1. 現代 즉 知識爆發時代

近年에 와서 科學技術分野의 學術雜誌를 통하여 發表되는 論文의 數는 年間 약 300만 편에 이르고 있으며, 8~12년에 그 數가 倍加되고 있다고 한다.¹⁾

美國 化學會에서 發行하는 เคมี컬 앱스트랙츠(Chemical Abstracts)라고 하는 抄錄誌에 수록되는 論文 건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65년에 약 195,000편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약 277,000편으로 늘어나, 5년간에 4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시 5년이 지난 1975년에는 39만편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世界의 化學分野의 發表論文數는 10년만에 倍加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어떤 學者에 의하면, 世界의 情報量(知識의

量)은 西紀元年 이래 1650년에 最初의 倍增을 이루었으며, 1900년에 두번째, 1950년에 세번째, 그리고 1960년에 네번째의 倍增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人類가 保有하는 知識의 總量이 倍增하는 데, 처음에는 1650년이나 걸렸으나 다음에는 250년, 그 다음에는 50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불과 10년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이다.²⁾

우리는 지금 이러한 知識의 爆發 또는 情報의 洪水 事態下에서 後代를 教育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2. 現代 즉 變化의 時代

近者, “3C革命”이라는 말이 世人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通信(Communication), 制御(Control) 및 計算術(Computation)의 革命的인 發達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는 美國의 어떤 링에서 벌이는 권투 시합을 링 주위에 앉아 있는 觀客들이 보는 바로 그 시각에 서울의 안방에 앉아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달에 갔다 오는 것이 알프스의 頂上을 征服하는 일보다 쉬운듯이 느껴지게 되었다. 10年 前에 우리나라에서 國勢調査를 하여 統計處理를 하는 데는 5年이라는 긴 세월을 소요하였으나, 오늘 날에는 ——人口數를 말하면 50% 이상 增加되어 있고, 調査項目도 늘어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 약 3분의 1의 人員으로써 1年半 걸리면 處理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의 動因이 되고 있는 것이 곧 3C革命이며, 이 3C革命은 18世紀 後半에 시작된 産業革命이 今日的 産業社會(或은 工業社會)를 초래한 것처럼 未久에 情報社會(或은 脫工業社會)를 도래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한다. 物財生產中心의 産業構造가 情報의 生産利用을 主軸으로 하는 構造로 전환되고, 物財의 價値보다 情報의 價値가 優先하는 情報社會가 正確히 언제 도래할 것인지는 몰라도, 現代는 情報社會로 移行하는 過渡期 즉 情報化時代인 것만은 틀림 없다는 것

1) 日本科學技術情報センター, 編. JICST 情報管理 初級講座. 東京, 同センター, 1969. pp. A2-3.

2) 宋吉永, 管理者를 위한 電子計算機. 서울, 百合出版社, 1971. pp. 14-15에서 再引用.

이다.³⁾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變化的 渦中에서 우리의 後代를 教育하고 있다. 다시 묻거니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B. 現代의 教育方法

이와 같은 知識의 爆發時代 또는 變化的 時代에 處해서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方法으로 우리의 後代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 “教師—教科書—講義—暗記”의 方法을 무엇으로 代替할 것인가?

다음의 引用文은 우리들이 새로운 教育의 方法을 모색하는 데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다.

文化的 發達이 日進月步 그 速度를 가하고 있으므로 過去와는 달리 今日的 文化社會의 成員에게 要求되는 經驗의 質은 極히 高度化하여 반드시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접촉할 수 있는 教師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라, 더욱 넓은 文化的 源泉에 直接 과고 들 것이 要求되고 있다. 이리하여 教材의 範圍를 한 권의 教科書에 限定시키거나 教師의 個人的 資質에 依存하는 따위는 意味가 없게 된 것이다.⁴⁾

今日の 教育界가 받고 있는 이 切實한 要求 즉 教科書와 教師의 個人的 資質에 依存하였던 從來의 方法이 無意味하게 되었으므로, 學習者 자신이 直接 文化的 源泉에 接觸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質問에 대하여 다음의 두 引用文은 適切한 回答을 提示하고 있다.

[오늘날] 知識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져서 教室에서 行하여지는 授業의 限界內에서는 그 授業이 실령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全部를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學校圖書館을 通하여 모든 知識의 領域과 모든 創造의 表現의 樣式에 있어서 制限된 教室授業의 限界를 無限히 확대시킬 수 있으며, 靑少年의 여러 가지 興味, 鑑賞力 및 好奇心을 만족시키고 이를 助長시킬 수 있는 方法을 마련할 수가 있다.⁵⁾

人間의 知識의 限界가 加速的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어떤 主題分野에 있어서 이미 開拓된 知識의 總量에 대한 한 사람이 所有할 수 있는 知識의 量의 比率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學問分野에 관한 知識에 通達하는 次善의 길은 그 知識을 어디서 얻어낼 것인가를 알아두는 것이라고 하여도 결코 過言은 아니다. 그리고, 圖書館을 자신있게 効果的으로 利用할 줄 아는 方法을 배운 사람은 限界 없는 知識의 世界에 이르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다.⁶⁾

또한 世界의 社會的, 技術的 發展이 너무나 急速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계적인 暗記方法으로만 教育 받은 사람은 대체로 卒業後 5年 內에 그의 學習內

容이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는 主張도 있다.⁷⁾

以上の 몇 가지 證言들이 우리에게 示唆하고 있는 바는 現代에 處한 우리의 教育方法은 學習者에게 단순히 事實을 蓄積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學習者가 자기의 知識을 계속 最新의 것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方法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方法은 곧 “文獻誘導的 教授方法”(book-oriented method of teaching) 또는 “圖書館的 教授方法”(library method of instruction)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圖書館의 教育方法이 唯一의 方法일 수는 없으며, 그것은 전체 教授—學習構造의 한쪽 날개(翼)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教授—學習活動에는 크게 두 가지 側面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는 知識(情報)을 傳達하고 蓄積(受容)하는 側面이고, 다른 하나는 傳達·蓄積된 知識을 雜持하고 發展시키는 側面이다. 이 兩側面 가운데 圖書館의 教育方法이 効果的으로 利用될 수 있는 面은 後者이며, 前者에 있어서는 餘他的 諸方法이 動員되어야 한다. 여기에 動員할 수 있는 諸方法으로서 視聽覺的方法(audiovisual method in teaching), 프로그램 教授法(programmed instruction), 팀 티칭(team teaching) 및 完全學習(learning for mastery)戰略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면, 問題는 우리 나라 教育界가 學習指導法의 改善運動에 있어서 知識을 効果的 能率的으로 傳達—蓄積하는 側面에만 執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혹자는 視聽覺的方法에 또 혹자는 프로그램 教授法이나 完全學習 教授構想에 모든 期待를 걸고 있다. 이러한 方法들이 教授—學習의 效率化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再論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들을 통하여 아무리 能率的 効果的 教授—學習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學習한 바를 最新의 것으로 維持시키고 보다 次元 높은 것으로 發展시키는 能力을 學習者에게 질러주지 않는다면, 그 學習者는 知識이 가속적 爆發的으로 팽대하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成功하는

3) 日本科學技術情報センター, 編, op. cit., p. A-1.
 4) 圖書館教育研究會, 編. 學校圖書館資料의 選擇. 東京, 學藝圖書, 1955. p. 17.
 5)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ed.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60. p. 4.
 6) Harry L. Nicholson, and Sirion P. St. John. "Foreword" in Integrating Library Instruction with Classroom Teaching at Plainview Junior High School, by Elsa Berner.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8. p. iii.
 7) Kaser, David, C.W. Stone, and C.K. Byrd. Library Development in Eight Asian Countries. Metuchen, Scarecrow Press, Inc., 1969. p. 124.

成員이 되지 못할 것은 分明하다. “眞正한 敎育을 받은 사람은 그가 學習한 바를 노상 最新의 것으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아는 者이며, 오직 文獻을 廣範하게 구사하는 法을 배운 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⁸⁾

學習指導法의 改善作業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學習活動의 두 側面——傳達—蓄積面 및 維持—發展面——을 먼저 포착하여야 하며, 연후에 各側面에 가장 効果的인 方法을 찾아내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方法으로써 양 쪽을 다 덮을 수는 없다.

III. 視聽覺媒體와 印刷媒體

—讀書의 重要性—

學習指導에 있어서, 印刷媒體(主로 書籍)을 利用하는 대신에 視聽覺媒體를 利用하면 보다 쉽게, 보다 正確하게 가르칠 수 있다. 近者 學校敎育에 있어서 視聽覺의 方法이 重視되고 있는 所以라고 하겠다.

學生들은 映畫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1) 日常의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망막에 받을 수 있으며, (2) 그들의 눈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볼 수 없는 光景일지라도 카메라라고 하는 第二의 눈이 잡은 畫面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3) 必要에 따라 현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單純化되었거나 또는 과장된 이미지, 즉 理解하기 쉽도록 정돈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教材의 理解性에서 본다면 텔레비전은 印刷媒體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

그러나, 視聽覺的 敎授—學習의 方法은 몇 가지 점에서 印刷 미디어에 의한 方法에 비하여 handicaps을 지니고 있다.

印刷 미디어의 경우, 망막에 비치는 이미지는 文字記號이며, 이것은 현실의 情景이 추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읽고 구상화시키는 것은 讀者의 일인 것이다. 즉 讀者는 그 자신의 망막에 비치는 추상적인 文字記號를 뇌의 중추에서 현실적인 이미지로 再構成하는 것이다. 여기에 思考活動이 수반하게 된다. 視聽覺 미디어에서는 直接的, 직관적 이미지를 受信하게 되므로 思考活動을 많이 省略하게 된다. 이것이 視聽覺 미디어의 長點인 동시에 큰 短點인 것이다. 視聽覺 미디어는 思考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思考의 오류를 피하게 하는 반면에 創造力의 배양에 必要不可缺한 思考活動을 저지한다. 사람의 두뇌는 木手의 연장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버려두면 녹슬게 되는 법이다.

讀書學界에서 認定을 받고 있는 사카모토 이치로(阪本一郎)敎授는 라디오, 텔레비전, 映畫 등 電波·映象媒體의 handicaps과 印刷媒體의 相對的 長點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映畫나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이미지는 現象面에

불과하다. 즉, 人間行動의 現象形態(phenotype)는 제시할 수 있어도 그 行動을 일으키는 內面過程(genotype)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印刷 미디어는 行動을 일으킬 때까지의 心理過程을 提示할 수 있다.

(2) 映畫,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시청자의 思考速度를 規定한다. 반면에 讀書에 있어서는 讀者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서 速度를 조절할 수 있으며, 어느 때이고 內省을 위한 休止가 가능하다.

(3)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一過的이다. 즉, 電波는 한번 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시청을 위하여서는 生活行動에 制限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책은 언제든지 편의한 時間에 읽을 수 있다.

(4)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프로그램은 選擇範圍가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讀書에 있어서는 어떤 主題 어떤 部類의 것이든지 讀者의 趣味性向에 따라서 自由로 選擇할 수 있다.⁹⁾

오늘 날 電波 또는 映像 미디어가 發達하고 普及됨에 따라, 一般社會나 學校社會에 있어서 印刷 미디어를 輕視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未久에 이들 새로운 미디어가 印刷 미디어를 축출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豫言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이들 새로운 미디어는 많은 長點을 가진 반면에, 印刷 미디어에 미치지 못하는 短點을 지니고 있으므로, 印刷 미디어의 缺함을 補完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完全히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讀書은 過去에 있어서와 같이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도 知識과 敎養을 獲得하는 重要한 手段이 될 것이다.

IV. 讀書의 習慣化

A. 讀書環境의 構成

1. 親近感을 주는 圖書館施設의 準備

敎室보다 아늑하고, 安樂하고, 自由로운 圖書館을 마련하는 것이 學生들에게 讀書習慣을 길러 주는 첫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좀 具體的으로 말하면, 學校圖書館은——

(1) 잘 정돈되고, 조출하게 裝飾되어야 한다.

(2) 스페이스에 여유가 있고, 備品이 安락하고, 맵시 있어야 한다.

(3) 資料의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家庭貸出(home circulation)이 허락되어야 한다.

(4) 圖書館職員은 親切하고, 學生을 사랑하며, 보살피 주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8) Kaser, David, and others, loc. cit.

9) 阪本一郎. 新讀書論. 東京, 講談社, 1959. pp. 108-133.

(5) 브라우징 코너(browsing corner) 或은 브라우징 룸을 마련하여 輕讀書를 접한 休息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適切하고 充分한 資料의 準備

學校圖書館이 學生들에게 愛用되기 위하여서는 그 資料가——

- (1) 豊富하여야 한다.
- (2) 多樣하여야 한다.
- (3) 學生들의 水準에 알맞아야 한다.
- (4) 새로운 內容의 것으로 代替되어야 한다.
- (5) 잘 整備되고 깨끗하여야 한다.

3. 中央圖書館과 連結된 學級文庫의 運營

책은 읽기 손쉬운 곳에 있을수록 많이 읽힌다. 따라서, 各學級에 學級文庫를 마련하게 되면 學生들의 讀書慾을 불러 일으키는 데 매우 效果的이다. 그러나, 이들 學級文庫는 各 學級別로 單獨 運營을 할 때, 重複에서 오는 浪費와 資料의 老化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을 中央館으로 하는 分館形式의 學級文庫를 運營함으로써, 資料의 重複 購入을 막고, 항상 清新한 새 資料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한가지 강조할 점은, 學級文庫가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中央圖書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B. 動機誘發

바람직한 讀書環境을 마련하는 것만으로써도 어느 程度의 動機를 유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間接的인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動機誘發을 위한 直接的인 手段으로서 日本 文部省은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들고 있다.¹⁰⁾

- (1) 資料購入에 있어서 가급적 많은 學生들의 意見を 받아들인다.
- (2) 圖書館活動에 될 수 있는대로 많은 學生을 參與시킨다.
- (3) 各教科의 教材에 관련된 圖書를 소개하고 읽힌다.
- (4) 映畫, 幻燈, 라디오, 텔레비전 및 新聞 등을 併用하여 讀書慾을 刺戟한다.
- (5) 新着書를 展示, 紹介 및 추천한다.
- (6) 學生들이 讀後感 등을 發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7) 年中行事 등에 관계되는 圖書資料를 展示한다.
- (8) 教師들이 學生의 善良한 讀書相談者가 되도록

그들의 協力을 求한다.

(9) 讀書를 통하여 얻은 바를 환등화하거나 劇化하거나 또는 感想文을 만들게 함으로써 興味를 持續시킨다.

(10) 教師들이 새롭고 興味있는 圖書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들려 준다.

C. 反復的인 訓練

習慣은 反復的인 訓練을 통하여 形成된다. 한 行動이 일단 習慣化하면 특별한 努力 없이 그 行動은 持續된다. 讀書의 習慣化도 그 例外는 아니다. 어릴 때 부터 讀書하는 習慣을 들인 사람은 平生 讀書活動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學校圖書館은 讀書하는 國民을 만들어 내는 명예로운 使命과 機會를 가진 것이다. 學校圖書館이 講究할 수 있는 讀書의 習慣化를 위한 方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다.

- (1) 圖書館時間(library hour)을 마련하여 한 學級이 최소 1週 1時間 圖書館에서 生活하게 한다.
- (2) 自習時間을 圖書館에서 보내게 한다.
- (3) 宿題를 課할 때, 관련된 圖書館資料를 소개하고 利用시킨다.
- (4) 圖書 및 圖書館 利用指導(teaching use of book and libraries)를 통하여 圖書資源을 活用하는 方法을 몸에 배게 한다.
- (5) 集團的 讀書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준다.

D. 地域社會와의 協助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不變의 習慣의 法則이 될 것이다. 國民學校 때부터 讀書의 習慣化 訓練을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다는 것을 우리의 素朴한 속담이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就學前부터 訓練시켜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學校教師(특히 司書教師)는 地域社會의 관계 人士 및 團體와 協力하여야 한다.

協力할 대상으로서, (1) 그 地域의 公共圖書館 특히 兒童部 司書, (2) 마을 文庫會員, (3) 幼稚園 보모 및 (4) 教會의 幼年班 指導者 등을 들 수가 있다.

協力할 內容으로서, (1) 讀書施設에 대한 助言, (2) 資料選擇에 있어서의 協力, (3) 讀書相談의 支援, (4) 이야기 時間(Story hour)의 運營, 展示會의 개최 등에 대한 支援 따위를 들 수가 있다.

10) 日本 文部省, 編. 小・中學校における學校圖書館利用の手びき. 東京, 東洋館, 1965. pp. 215-216.